

## 청산을 노래하는 생명의 상상력, 청산도

---

김현자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교수, 문학평론가

### 1. 자연의 인식에서 보여주는 생명적 이미지

‘청산’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하다. 시원의 향수와 함께 애뜻한 그리움을 환기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일찍이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라고 노래했던 고려인의 회구가 담긴 영원한 고향이자, ‘나비아 청산에 가자 범나비 너도 가자’나 ‘청산은 어찌하야 만고에 푸르르며’라고 노래했던 조선의 수많은 선비들이 꿈꾸었던 이상향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청산에 들어가 살지 않았다. 아니 그곳에 들어가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토록 오래 청산을 노래했을 것이다. 이러한 이상향이란 흔히 지고의 선, 완성, 동일성 등과 동의어로 쓰여지는 개념이다. 인간과 우주와의 완전한 화해, 부정적인 모든 것의 제거, 주체와 객체의 동일성, 모든 소외가 극복되어진 궁극적인 상태 등을 표현한다. 따라서 우리 문학에서 청산은 일상적인 실상으

로서의 푸른 산을 넘어서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서 대치된 곳으로, '인간의 자연화, 자연의 인간화'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 길지 않은 우리의 현대사에서 이와 같은 '청산'이 우리말의 리듬과 향기에 기대어 새롭게 재현된 대표적인 시를 꼽으라면 단연코 박두진의 <청산도>(1947)를 들 수 있겠다. 전통에 자리잡은 "동양적이고 얼마간 은둔적이고 자연스러운 호흡과 그러한 정서의 세계로 안정해 들어앉으려는" "고요하면서도 밝고 싱싱하고 생명에 찬 세계 그러한 '청산'을 시화하고 싶었다"라는 시인의 고백에서도 이러한 특징은 재확인할 수 있다. 청산으로 대표되는 그의 자연은 이상화된 자연, 혹은 관념의 세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 청산도

박두진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첩첩첩 흐르듯 질푸른 산아. 술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등 등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셋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넘엇골 골짜기서 울어오는 뚝뚝기…….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 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찌면 만나도질 불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버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서서 눈물 어린 불이 고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티어울 맑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 외줄 불이 고운 나의 사람.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너머, 골 너머, 삐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같은 사람 속, 아우성 쳐 흘러가는 물결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청산도〉라는 제목을 가진 이 시는 산문시 형식의 4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행구분의 역할을 하는 잦은 쉼표와 마침표의 효과적인 사용, 극도로 절제된 종결어의 사용은 이 시에 짧은 휴지와 긴 호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성·의태어를 비롯한 감각적인 시어와 함께 현재시제의 사용도 생생한 구체성과 현장감을 증폭시켜 준다. 이러한 시형식의 특징은 이 시의 근간이 되고 있는 반복에 힘입어 빠르고 힘찬, 그러면서도 유려한 리듬을 만들어 낸다.

특히 이 반복 형식은 소리의 층위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의미론적 층위에서도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1연에서 세 번, 2연에서 두 번에 걸쳐 반복되고 있는 호격 ‘산아’, 이것은 산을 부르는 소리이다. 이 부름은 대상을 가깝게 끌어들이는 기능을 한다. 그 부름이 점층적으로 감각화된 수식어를 동반하면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시인의 감정을 더욱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독자의 주의를 강하게 환기시켜 주고 있다. 또한 이 도입부의 부름은 2연에 두 번, 4연에 세 번 반복하고 있는 종결어 ‘그리워라’ ‘그리노라’와 호응한다. 즉

이 시를 가장 간단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산아, 그리워라·그리노라'로 요약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종결어 또한 부름과 같이 점층적인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시는 수미상응 구조를 이루고 있다.

## 2. 상징음과 반복에 의한 리듬의 효과

일차적 의미 해독을 위해 1연부터 천천히 읽어보자. 이 시는, 마치 카메라의 앵글을 멀리 그리고 높은 산마루에서부터 산기슭 혹은 산 속 가까이로 옮기고 있는 것처럼, 산을 조망해 내는 것으로 시작한다. '철철철'과 '둥 둥'이라는 의성·의태어로 압축되는 우뚝 솟고, 질푸르고, 무성하고, 기름진 산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부동(不動)의 공간이다. 그러나 그 풍경은 시인과 친화적인 대응으로 시작되고 있으며 산 속의 여러 청각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밝고 생명에 찬 세계인 청산으로 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2연에 이르면 시인은 보다 밀접하게 산에 동화되어, 산이 '나'요 내가 '산'인 상태에 이른다. 산기슭의 풀썩에 가슴을 대면, 산의 골짜기를 흐르는 물소리와 나의 가슴이 우는 소리는 '줄줄줄'이라는 의태어에 의해 동일화된다. 청산이 품은 동경의 대상이 '아득히 가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이라면 내가 꿈꾸는 동경의 대상은 '불이 고운 사람'이다. 그러나 산 밑에 있는 나의 세상에는 있어야 할 불이 고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가슴으로 그리운' 것이다. 이때 의연한 산의 물소리는 나의 가슴 속에 맺힌 정서의 응어리를 풀어준다. 여기서 '청산'과 '불이 고운 사람'은 대비적인 공간 속에서 같은 의미향을 이룬다. 각각 자연(초월)과 세속(일상)에서, 즉 공간을 달리하는 곳에서

시인이 열망하는 대상들이기 때문이다. 그 열망을 시인은 '아른아른'이라는 의태어로 구체화한다. 나는 불이 고운 사람이 그리워 청산에 올랐고 다시 그 청산은 의연한 가슴에다 나의 그리움을 이입시키고 있는 셈이다.

3연에서, 시인이 몸담고 있는 일상적 공간은 '티끌 부는 세상' '버레 같은 세상'이라는 구절에 의해 더욱 구체화된다. '달' '밤' '눈물'은 시인의 고통스런 일상의 내면 표상이다. 그러나 시인은 이처럼 시끄러운 세파를 '밝은 하늘 빛난 아침'과 '푸른 언덕'을 지나 달려올 '불이 고운 사람'에 대한 희망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그 희망의 대상은 역시 의태어 '총총총'으로 감각화하고 있다. 여기서 '불이 굵다'라는 구절은 등글고 붉은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데 이는 '해'의 이미지와 일치한다. 이 이미지는 또한 '달'과 '밤'과 '눈물'이 가 버린, 그와 정반대의 '청산의 아침'이라는 개방적 공간으로 의미화된다.

끝연에서 3연의 절정을 마무리하면서 '아우성 쳐 흘러가는 물결같은 사람'들과 일상의 흐름 속에서, 질푸른 청산과 불이 고운 아침해에 대한 그리움이 라는 시인의 진정한 희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특히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에서 '철'은 1연의 '첼첼첼'과 대응된다. 청산은 세 음절 '첼첼첼'처럼 넘치고 있는 반면 나는 단음절 '철'도 없는 것이다. 또한 청산에 대해서는 액체화되어 넘치는 양태를 환기하는 반면 나에게는 시기(계절)나 분별(지각)의 의미를 환기한다.

시에 있어서 하나의 시어가 지시하는 의미와 소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일은 사실 새삼스럽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의성·의태어는 그 기본적인 표현장치의 하나로서 시인은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상징어로 사용함으로써 음악처럼 직접 전달하게 된다. 이를테면 민요의 후렴이

나 시조 작품 중에서는 의성·의태어를 사용하여 자기의 감정이나 의사를 대단히 효과적으로 표상하고 있는 것이 많다. 이 〈청산도〉는 5개의 의성·의태어를 포괄하고 있다. 대체로 2, 3, 4음절의 다양함과 움직임이 큰 모음으로 구성되어 산의 생명력과 풍요함을 표상한다.

먼저 1연의 '철철철'이라는 의태어는 몇 개의 어휘를 똑같은 울림 가운데 서로 이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청산의 푸르름을 형용하나 나무의 무성함, 금빛 햇살의 인위적인 때가 하나도 없는 흐름의 상태까지 나타내는 이중삼중의 다성성(多聲性)을 지님으로써 복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그것은 '금빛 기름진' 햇살의 [k] 음의 유포니와 함께 햇빛과 산, 그리고 나무를 동일한 시적 구조의 단위 안에서 동시에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나아가서 빛은 생명력에 가득찬 것으로 감각화되어 기름진 빛으로 육화(肉化)되어 나타나기까지 한다. 이 빛에 대한 생생함과 도취감, 풍부한 열정은 사물을 근원의 위대함으로 되돌려 보내주는 존재의 힘과 함께 우리의 상상력과 이념을 단순성의 영역으로 이끌고 간다.

'둥 둥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의 '둥 둥'은 구름의 움직임이자 산과 시인을 연계시키는 느낌을 들게 하면서 정중동(靜中動)의 술령임을 나타내고 있다. 생명 의식에 대한 그의 지향성은 '씻다'라는 서술어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근원적으로 정화와 세례의 속성을 지닌 구름(물)의 씻김에 의해 하늘과 태양과 인간과 세상 모두는 씻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깨끗하게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상징의 세계로의 이행을 뜻하는 것으로 생명력의 정화, 나아가서 재생과 동일한 것이 되기도 한다.

2연의 '줄줄줄'이라는 의태어도 표면상으로는 가슴이 우는 상태의 묘사지

만 골짜기에 스며드는 물소리와 눈물을 같이 포용하는 이중성과 연관되어 이 연의 중심이 되는 가슴과 물소리를 이어주고 있다. 즉 '줄줄줄'은 눈물과 물소리에서 비롯된 의태어이면서 산의 가슴과 시인의 가슴을 동일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 반복되는 '줄줄줄'에 의한 동일 행위의 계속은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을 후련하게 씻어 주는 효과를 지닌다.

'아른아른'은 원래, 무엇이 조금 보이다 말다 하거나 그림자가 희미하게 움직이거나, 물이나 거울에 그림자가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양상을 나타내는 어휘이다. ㅏ/ㅡ의 음상이 밝음과 어두움의 양면성의 교체에 의해 꿈과 실상, 그리움의 대상인 불이 고운 나의 사람, 산과 시정(市井)의 물결, 시인의 울음과 나의 사람과의 만남을 상징화한다. '아른아른'은 꿈과 그리움의 아득함과 연결되는 불안정한 흔들림인 것이다.

3연의 '총총총'이라는 표현도 현실적인 소리가 아닌 경쾌하고 명랑한 음향으로 바뀌고 있다. 눈물과 밤의 어둠이 걷힌 시간으로, 향기로운 이슬발 푸른 언덕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총' [chong]은 음의 또렷또렷하고 밝음이 급히 달려올 듯한 걸음의 발랄하고 신선한 몸짓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

이 시 전체는 물 흐르듯 유연한 [r] 음의 수많은 반복과 다음 다음으로 이어지는 완만한 리듬이 산의 공간이 갖는 청정한 움직임을 풍요롭게 구축하고 있다. 이런 리듬의 움직임이 전체 시에 깔린 무성한 생명력의 이미지와 어울려 유동성이 넘치는 세계의 통일된 이미지를 주는 것이다. 특히 '철철철', '줄줄줄'이라는 상징어에 의해 이 시 전체는 모든 시적 대상이 액체화하고 있다. 산-흐른다, 햇살-기름지다, 구름-움직이다, 나-올다로 변용함으로써 자연과 그 속의 인간이 물의 정화하는 속성에 의해 세상의 '티끌'과

‘버레’ 같은 보잘 것 없음이 씻겨져 맑음으로 연결된다. 그리하여 이 시의 주된 어조를 형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감정인 그리움은 아우성 처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서도 맑고 빛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청산도〉는 시어의 특이한 구사와 더불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반복에 의한 리듬의 되올리는 효과, 모음과 자음의 유포니, 의성어와 의태어가 문장 속에서 조응하는 이중적 기능 등은 한국어가 지니는 소리의 표현력 내지 운율학 연구의 풍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자연의 소리나 사물의 태도를 묘사하고 있는 의성어와 의태어들은 대상에 대한 시인의 애정을 나타내는 음성 묘사와 함께 대개가 첩어의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요소와 함께 음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박두진 특유의 자유분방하게 쏟아져 내리는 감정을 폭넓게 표현하려는 의도에 의하여, 호흡이 긴 시형의 개방성과 행이 주는 의미보다는 울림이 주는 리듬감을 바탕으로 “음악적인 음영을 의식적으로 노리는 행들로 시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과 깊이 관련된다.

### 3. 빛에의 회구와 능동적 상상력

시인의 욕망 속에는 언제나 청산의 아침이 잠재해 있다. 그러니까 시인에게 청산은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티끌 부는 세상’ ‘버레 같은 세상’ ‘아우성 처 흘러가는 물결같은 사람’ 들에 대응하는 공간의 의미를 띠고 있다. 그곳은 달과 밤과 눈물의 골짜기에서 금빛 기름진 햇살이 솟아나게 하는 생명의 힘이 생성되는 공간이며, 흰 구름과 푸른 하늘, 사슴과 땀꾸기, 그리고 인간



이 한자리에 교감하고 조응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이상의 공간이자 주술의 공간인 셈이다. 나아가 그곳은 개인적·시대적·민족적 어둠을 생명이라는 절대성과 함께 묶는 초월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밝은 빛의 요소와 함께 새로움, 아름다움, 순수, 시작 등을 의미하는 자연의 질서는 불멸의 확실성에 가득찬 신념의 세계로서 동경이나 열정에 의한 시의 개방성이 힘찬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산 뒤에 붙은 '도(道)'의 의미가 길이라는 구체적인 의미를 넘어 산과 나, 자연과 인간의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관점에 이르는 형이상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데서도 이러한 특성은 더욱 뚜렷해진다.

박두진의 <청산도>가 갖는 시사적 의의는 1930년대의 시문학파나 모더니즘이 지니는 한계의 극복으로 자연을 제시함으로써 개성있는 정서와 순수한 시 정신에 의해 한국 현대시에 깊이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연의 인식에서 보여주는 생명적 이미지, 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능동적 상상력, 한국어가 갖는 소리의 다양성과 리듬에 대한 효과, 그리고 시를 시대나 종교, 윤리와 동일한 것으로 꿰뚫는 시 정신의 다면적인 추구에 있다 하겠다.